구역	예바	교안	2025.01.19
----	----	----	------------

1. 신앙고백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2. 찬양과 경배	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3. 기도	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2번 찬 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		
4. 말씀	본문: 로마서 12장 9-13절 제목: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자세		
5. 질문과 나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결단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6. 증거	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 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 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		
7. 치유와 회복의 시 간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치유집중기도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문제를 맡기며 기도 서로 나눈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살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 		
8. 공지사항			
9. 주기도문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자세. / 롬12:9-13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바른 자세를 권고합니다. 주님은 바울의 권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성도를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9-10) "형제를 사랑하여"는 "형제애를 바탕으로 사랑하여"가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애는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존중하는 것이 성도가 형제애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거짓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그 힘으로 서로를 거짓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주님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11)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성도를 섬겨 유익을 줌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셋째, 주님은 소망 중에 함께 기뻐하고 환란 중에 함께 참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12) 우리 각자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함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함께 환란 중에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역 소그룹모임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또 힘든 일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함께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 주님은 어려운 이들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13) 성도는 어려움 당한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무엇으로 돕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손 대접하는 일에도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온 낯선 사람을 친절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나 교회를 찾아온 손님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숙 정도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물론 성별 나이 직업 성격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평안과 부흥이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명령 따리서: 10.11.10.10.10.10. 원수라 도 멀리하 고 제나 너그럽게 네 몸 을 널 핍 박 이 러 한 아끼고 하는자 위해 제와 이웃 을 실한 맘으 로 리게

헌신과 봉사

1

네 만과 정성을 다하여서

쉬운 기타코트(Capo=1st): Eb → D Bb → A Gm → F#m F → E Ab → G

(통 369)

온 맘 다해 卫经过一4一七子 모든것아서는주님께 이해항수없을때라 도 かひぞろか四子 주 않기 원하네 내모든 주만성기 —리

♬경배와 찬양♬

구역	모임	교안	2025.01.19
----	----	----	------------

1. 아이스 브레이크	*눈치게임: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예:5명이 모였으면 4번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거나 번호를 외치며 손뼉을 치는 게임입니다. *벌칙 해당자: 마지막까지 번호를 외치지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동시에 같 이 외치거나 함께 일어나는 사람
2.찬양과 경 배	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3.기도 (통성으로)	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 자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
4.은혜의 나 눔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내용이나 응답받은 기도제목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 앞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5.말씀의 나 눔	본문: 로마서 12장 9-13절 제목: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자세.
6.질문과 나 눔	1)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유익을 얻은 일이나 어려움을 겪은 일을 나누어 봅시다. 2) 설교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점에 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3)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결단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7.중 거	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 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 3) 구역 결적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
8.치유와 회복의 시 간	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치유집중기도: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3) 문제를 맡기며 : 서로 나눈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
9.광고 및 주기도문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자세. / 롬12:9-13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바른 자세를 권고합니다. 주님은 바울의 권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성도를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9-10) "형제를 사랑하여"는 "형제애를 바탕으로 사랑하여"가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애는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존중하는 것이 성도가 형제애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거짓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그 힘으로 서로를 거짓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주님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11)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성도를 섬겨 유익을 줌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셋째, 주님은 소망 중에 함께 기뻐하고 환란 중에 함께 참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12) 우리 각자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함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함께 환란 중에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역 소그룹모임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또 힘든 일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함께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 주님은 어려운 이들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13) 성도는 어려움 당한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무엇으로 돕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손 대접하는 일에도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온 낯선 사람을 친절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나 교회를 찾아온 손님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숙 정도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물론 성별 나이 직업 성격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평안과 부흥이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온 맘 다해



주 님과함께하는 이 고요한-시-간 주 님의보작앞에 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것아-시-니 나 오직주의연굴 구



마음을-쏟-네~ 모든것아시는구님 게 감 중것없네 내 하게하-소-서 다 이해 항수없을 때라 도 ~ 감사하며 날





해 사강함 UCL— 온망다 해 주악기원하네 내모든



삶 당신것 이니 - 주만성 기 -리 온 망다 해